

# 광주 11% 전남 30%...상반기 전·월세 거래 급증

## 집값 하락에 주택 매매시장 침체 장기화 전월세 수요→매매 수요 전환 대책 시급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70만건을 돌파하며 관련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반기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월세 거

래량은 총 72만8763건으로 2011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70만 건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국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은 7.15%(4만 8601건) 증가했으며 감소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1만3921건으로 전년 동기 1만 2579건과 비교해 10.67%(1342건)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전년 동기 8367건에서 올 상반기 1만860건으로 무려 29.80%(2493건)나 늘어났다. 전남지역의 증감률은 제주(32.18%)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었다.

이처럼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장마철과 휴가철이 겹치지만 전세 물건을 없고 수요는 몰려서 전세가 상승하는 점도 전월세 거래 증가를 부추겼다. 실제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8주 연속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택 매매보다는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하락에 담보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광동주택이 늘어난 것도 거래 증가 이유”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전월세 시장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 대상 물량이 상반기에 비해 적은 데다 4.1 부동산대책 효과가 나타날 경우 전세난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상황이 나

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4일 4.1대책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수요를 매개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국 미분양 주택 5개월 연속 감소

6월말 기준 6만5000 가구...전월비 2.7% 줄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6만5072가구로 전월(6만6896가구) 대비 1824가구(2.7%)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7만5180가구에서 2월에 7만3386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달에 종료된 취득세 인하와 4·1부동산 대책의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혜택으로 미분양 물량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신규 미분양이 579가구 발생했지만 기존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전월 대비 268가구 감소한 3만 2501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충남 등에서 신규 미분양(1804가구)이 크게 늘었지만 기존 미분양이 3600여가구가 해소되면서 전월(3만4127가구) 대비 1556가구 감소한 3만2571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의 미분양은 6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2만 9284가구로 전월 대비 642가구 감소했고 85㎡ 이하는 3만5788가구로 1182가구 줄었다.

준공후 미분양은 2만7194가구(수도권 1만5790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합뉴스



“친절·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금호고속은 25일 광주 유·스퀘어 금호고속 대회의실에서 최근 교육을 마친 245기 신입 승무사원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금호고속 제공>

## 광주경총 상반기 449명 취업 성과

청년취업아카데미·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운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열)가 25일 올 상반기 동안 449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취업한 인력을 살펴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115명, 30대가 31명, 40대가 108명이었으며, 50대 이상 장년층이 195명으로 5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이 325명, 여성이 124명으로 전체취업인원 대비 남성이 72.4%를 차지했지만 40대에서는 여성이 51.9%로 남성보다

높아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활발했다.

광주경총은 정부로부터 각종 고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청년취업 아카데미, 중장년 인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하남산단단지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1기 수료생이 배출되는 이달 말 이후로 청년층 취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현대삼호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무분규 마무리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013년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526명 중 2046명(81%)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72.9%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24일 10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500원 인상,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200%, 노사화합 격려금 200만원, 안전복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                           |                               |                               |
|----------------------------|---------------------------|-------------------------------|-------------------------------|
| ▼ 코스피지수<br>1909.61 (-2.47) | ▼ 코스닥지수<br>541.94 (-1.66) | ▲ 금리(국고채 3년)<br>2.95% (+0.06) | ▲ 원·달러 환율<br>1116.10원 (+3.40) |
|----------------------------|---------------------------|-------------------------------|-------------------------------|



##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쏘울’ 美 ‘상품성 만족도’ 2년 연속 1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사진)이 2년 연속 미국 시장 소형MPV(Compact MPV)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4일(현지 시각) 미국 제이디파워(J.D. Power)가 발표한 ‘2013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브랜드 부문 21개 브랜드 가운데 기아차가 5위, 현대차가 6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계단, 2계단 상승한 순위로, 혼다(7위), 닛산(9위), 도요타(16위) 등 경쟁 브랜드를 모두 제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아차 쏘울은 2년 연속 소형MPV(Compact MPV)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최우수 상품성 만족상을 수상했고, 부분별

Top3에 오른 차종도 현대차가 엑센트, 벨로스터, 아제라(그랜저), 에쿠스, 투싼 등 5개 차종, 기아차가 리오(프라이드), 쏘울, 옵티마(K5) 등 3개 차종에 달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제이디파워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는 신차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고객 8만3000명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5월에 걸쳐 총 77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상품성 만족도’ 조사는 신차품질조사(IQS)와 달리 내외관 스타일, 주행 만족도,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편의성, 실내공간 등 자동차의 성능과 감성적인 부분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며 1000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좋은 평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리뉴얼 출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알코올 도수 25도로 높여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를 리뉴얼 해 24일 출시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새롭게 선보이는 일품진로는 프리미엄 소주로의 차별화를 위해 알코올도수를 23도에서 25도로 높였다.

기존 제품의 다소 강한 향과 진한 뒷맛을 완화하고 목촉속성의 부드러운 향과 은은한 맛으로 개선해 소주 다음을 살렸다.

또한 숙련된 양조 전문가들이 순쌀 증류원액을 참나무 목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킨 고급격 소주로 숙성 원액을 100% 사용해 최고급 프리미엄 소주임을 강조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병모양과 상표도 바꿨다.

병모양을 기존 원형에서 사각 형태로 바꾼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을 살렸



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를 현대감각의 캘리그래피로 교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